

郡, 보은매립장 관련 '투트랙' 병행

단기, 응급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 중장기, 최적방안을 도출 완주군 최근 발표, 테크노밸리 매립장 백지화 변함없이 추진

완주군은 비봉면 보은매립장 대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응급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민과 군의원, 환경·토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최적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보은매립장 침출수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곡수와 오염수 분리공사를 완료하고, 매립장 상부 균열 메움 등 1차 응급복구를 마무리했다"며 최근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9월까지 매립장 상단 우수배제 덮개 설치 공사를 끝내고, 자암 소하천 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매립장 침출수 저감시설과 차단벽 설치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보은매립장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타당성과 설계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비와 군비 등 50억 원을 투자해 생태습지와 침출수 전처리 시설, 차수벽, 교육관 가스포집 등을 설치하여 더 이상 환경오염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보은매립장 안정화 대책은 주민 신뢰를 토대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과 토목 전문가, 주민대표, 군의원 등이 참여하는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각계의 참여 속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주변지

역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주민과 의회, 전문가들과 함께 보은매립장 최적관리 방안을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완주군은 또 완주산단 배매산 인근 그린밸리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도 "공원지역에 일부 불법매립을 확인하여 지난 7월에 고발조치 하고, 8월에 행정명령(원상복구)을 내린 바 있다"며 "앞으로 시추 등을 통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제2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종전의 방침과 관련해서 "항간에 다시 조성한다는 말들이 나도는데, 백지화 방침엔 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

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보은매립장 대책을 위한 응급복구 차원에서 매립장 관리방안 용역과 오염수 및 우수배제 공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침출수 처리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4월 초순계 5천여만 원을 긴급 투입, 오염수와 계곡수를 분리하는 300m 길이의 이중관 설치와 매립장 주변정리 및 자암재 준설을 마쳤다.

또 집수정 13개와 수증펌프 4대를 설치해 오염수 차집 위탁 처리 공사를 끝내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계곡수 분리와 집수시설 설치, 상부 균열 메움과 측구 정비, 자암재 환경정비 공사도 긴급 진행하고, 악취 제거를 위한 저감제 살포에 나선 바 있다.

원제연 기자/bamsuwon@hanmail.net

郡, 공공급식 농산물 생산자 역량 강화

공공급식지원센터, 출하 농가대상 교육 실시 농산물 안전 및 품질에 관련한 특강 등 진행

완주군이 공공급식 우수농산물 생산자 교육으로 농산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5일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센터장 박봉산)는 급식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출하 농가 12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이세자 과학영농팀장의 '안전한 로컬푸드 생산'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급식지원센터 정대범 기획생산팀장의 '공공급

식 출하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 기준'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안전성과 품질을 강조하며 그동안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한 농산물에 대한 클레임 사례와 소비자 의견 등을 가감 없이 품목별로 설명해 이해와 공감을 높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문순용 씨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사업이다"며 "급식센터 출하 기준 및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공공급식센터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출하 농가 마인드 교육 및 친환경 재배 기술 교육 등을 연내 진행할 예정이며, 생산농가의 역량 강화를 통해 2020년부터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약 재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오 기자/502-kim@hanmail.net